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월 임원회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오후 집회 후 담임목사실에서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여름수양회를 위한 준비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4월 28일 용마산·아차산으로 산행을 갑니다. 당일 오전 10시 30분 광나루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4월 22일은 자전거의 날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합시다.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면 나와 지구가 함께 건강해집니다.

식 당 봉 사 : 최현옥 김순자 박미란 이수정 권현숙 이소순 김종술
 4/29식 당 봉 사 : 정경례 강순배 신영신 김미현 김진선 김명순 김재환
 오늘설거지봉사 : 김기성 최경미 양상철 박재란
 다음 주 설거지 : 이준하 이지훈 국지연 서안나
 새 교 우 : 유승진 (7여)
 떡 대 접 : 한창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주만물을 다채롭게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산과 들의 꽃들이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로 피어나듯이, 우리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선부른 판단과 정죄의 시선을 거두어들이고 하나님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적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는 어린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반복되는 학원 폭력에 몸과 영혼이 멎들어가는 학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그들의 가슴에 밝은 꿈을 심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미숙 김상근 최선미 김준우 우순덕 김준호 곽혜자 민병배 문현미
 박영희 양상철 박재란 윤미경 이봉옥 이정은 이종배 이종현 이현순
 임주빈 최현옥 정완수 김재광 정종삼 조순덕 주경진 이윤정 허신열
 허호범 박성실 홍성식 이유리 홍순구 안홍숙 무명2

감사헌금:

강혜실 이한림 김명희 정현숙 조병익 조정연 조순덕 진정애 홍성식
 이유리 무명4

생일감사헌금:

김태경 박서영

녹색꿈헌금:

김기석 김희우 신진식 변혜정 임창선 무명2

장혜숙	백혜숙	박영희	조순덕
노순옥	박성희	김미순	박성희
최희영	최경미	최경미	임자순
장영숙	신영신	최종미	김명순
정경례	진정숙	안정숙	조병주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조영순
박효선	허정윤	김현주	홍복선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오복순
이형숙	권미숙	이형숙	김필순
안홍숙	오현정	임영선	김명희
정영선	서정순	송양진	김희우
박혜경	조향미	박혜경	김희미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마음으로 읽는 글

벚꽃 지는 날에

김승동

가끔 눈물이 날 때가 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더 알 수 없는 눈물이
푸른 하늘에 글썽일 때가 있다

살아간다는 것이
바람으로 벽을 세우는 만큼이나/ 무의미하고
물결은 늘 내 알량한 의지의 바깥으로만
흘러간다는 것을 알 때가 있다

세상이 너무 커서/ 세상 밖에서 살 때가 있다

그래도 기차표를 사듯 날마다
손을 내밀고 거스름돈을 받고
계산을 하고 살아가지만
오늘도 저 큰 세상 안에서
바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나는 없다

누구를 향한 그리움마저도 떠나/ 텅 빈 오늘
짧은 속눈썹에 어리는 물기는
아마 저 벚나무 아래 쏟아지는
눈부시게 하얀 꽃잎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오지은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살펴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픔을 치유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폭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한탄만 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그 아픔을 고스란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멎들어가는 가슴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주님이 계셨음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가슴과 눈물을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김기석 목사	주전 8세기 예언자들 / 김재흥 목사 윤수진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조병무 장로	방준 선생 허호범 집사

4월	영접위원	방문성 하현철 이성범 안정숙 정경례 박경원
	헌금위원	조병무 백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은행나무보다 큰 봄까치꽃

누군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왔습니다. (요20:1-9)

우리 집은 아파트지만 낮은 층이라 뜰이 잘 보인다. 남향으로는, 낙엽이 깃털 같다고 해서 낙우송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키 큰 나무가 떡 버티고 서 있어서 그 뒤에 키 작은 나무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북쪽은 차도로 면하고 있어서 창문도 작다. 비록 작은 창문이지만 그쪽은 가로수가 은행나무여서 가을마다 찬란하고도 장엄한 금빛 축제를 연출했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나무들은 다같이 봄 기운에는 매우 둔감한 편이다. 가장 잘 보이는 낙우송은 겨우내 떨구고도 아직도 다 못 떨군 암갈색의 칙칙한 잎을 누더기처럼 걸치고 있을 뿐이고, 북창 밖 은행나무도 작년 가을의 영화가 한바탕의 꿈이었던 양 쪽쪽 뻗은 가장귀는 철사처럼 완강하기만 하여 뭔가 움틀 생명력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올해는 봄이 늦는구나’, 실내가 후텁지근하다고 여기면서도 자신 있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도 겨울나무인 채로 버티고 있는 낙우송과 은행나무 때문만도 아니고, 올해는 예년에 비해 꽃소식이 적어도 일주일쯤은 더디게 오리라는 신문 방송의 영향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어느 틈에 봄도 신문 방송이 먼저 호들갑을 떨고 가야 오려니 여기고 있었나 보다.

도타운 햇살 속에서 베란다에 있는 장독 뚜껑 위에 머물렀던 공기가 꿈지락꿈지락 아지랑이가 되어 피어오르는 게 선연하게 보이는 한낮이었다. 불현듯 이불을 내다 넣고 싶단 생각이 났다. 오랫동안 장 속에 처박힌 채 납작해진 이불도 단박 아지랑이처럼 등실, 가볍고 부송부송하게 부풀어 오르게 할 것 같은, 뭔가 건잡을 수 없는 햇빛이었다. 이불을 널려

고 새시 문을 열다가 비로소 바로 창밑에 핀 노란 산수유꽃을 보았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산수유나무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거실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산수유꽃을 시작으로 봄이 일단 보이기 시작하자 발밑에 널린 게 봄의 생명력이었다. 그중에도 잡풀은 어찌나 극성맞은지 손가락도 안 들어갈 보도블록의 좁은 틈 사이로도 열심히 푸른빛을 토해내고 있다. 오늘은 그런 풀 중의 하나가 작은 꽃을 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연보랏빛 갓난아기 손톱만한 꽃이었다. 무심히 밟고 지나갈 것을 그 가련한 꽃 때문에 곤두박질을 칠 뻔하면서까지 피했다. 봄까치꽃이었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은 꽃이랄 것도 없는 그냥 곧 스러질 듯이 미미한 한 점에 불과했다. 근데도 왜 무심히 짓밟지를 못했을까. 그건 그게 ‘봄까치꽃’이라는 걸 알아봤기 때문이다. 그 이름에는 그 이름을 알기 전엔 느낄 수 없었던 어떤 느낌이 있었다.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어느 아름다운 이와 함께 들뜬에 핀 자잘한 들꽃들의 이름을 알고 싶어 식물도감을 펴들고 비교해본 적이 있다. 인쇄된 꽃과 실물이 많이 달라서 그런지 많은 이름 모를 꽃 중에서 이름을 건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꽃이 바로 그 봄까치꽃이었다. 이름을 알면서 비로소 그 꽃은 나에게 특별한 꽃이 되었다. 느끼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소리가 이 손톱보다도 작은 꽃에도 해당될 줄이야.

주님, 당신의 부활을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부활하신 당신을 뵈는 적은 없습니다. 뵈기 전에 당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느끼게 하소서. 그러면 당신이 아무리 낮은 곳에 보잘것없는 이들과 더불어 계시더라도 능히 알아볼 수 있겠나이다.



- 박완서, 『웁고도 아름다운 당신』 중에서